“모든 호국영령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홍법사, 제3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 봉행

6월 6일 호국선열 넋 기려
숨결대회 2000여 명 참가

이도경 부산지사장


홍법사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와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봉행했다.

홍법사(주지 심산 스님)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경내 일원에서 ‘제34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와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를 봉행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홍법사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주최하는 호국 영령 천도의식으로,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유지를 이어 매년 봉행하고 있다. 또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함께 열어 불교홍포 및 교육 사업에 앞장선 창건주의 정신을 기념하고 있다.

행사는 천도재 및 백중 입재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회사 및 헌다, 삼귀의, 보현행원, 반야심경, 묵념, 경과보고, 내빈 소개, 환영사, 인사말, 추도사, 봉행사, 음성공양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 양재생 홍법사 신도회장,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 패트릭 도나호 예비역 소장 외 콜럼버스 대학생 12명, 스테펜 채프먼 목사 외 미해군 11명, 김정민 53사단 중령, 류완하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총장, 강용창 부산경찰불자회장 등이 참석해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호국 영령과 참석자 여러분께 마음 모아 고맙고 감사하다”고 봉행사를 전했다.

스테펜 채프먼 군종 목사는 “이 아름다운 행사에 주지스님의 초대로 참여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이다”며 “저의 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이셨는데, 아들인 제가 한국에 와서 아름다운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다. 저를 비롯해 유엔군의 모든 사람은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희생한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재생 신도회장은 “이 행사는 홍법사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님의 뜻에 따라 허공에 계시는 호국 영령에게 공양을 올리는 매우 뜻 깊은 행사다”며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가 더욱 발전 계승되어 이 땅에 불국토의 원력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도나호 예비역 소장은 대한민국의 아름답고 발전된 모습을 보기 위해 12명의 학생들과 이곳에 왔다며 그중 2명의 학생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에 이어 오후에는 청소년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한 제12회 호국의 숨결대회가 열렸다. 호국의 숨결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서예 세 분야로 진행됐으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2000여 명이 참석했다.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는 재단법인 불심홍법원이 창립된 1990년부터 시작, 34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1996년에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재’로 명칭을 변경하고 두구동 신창농원(현 홍법사)에서 봉행됐다. 2003년부터는 조계종 홍법사와 사단법인 한나래문화재단이 (재)불심홍법원의 뜻을 계승하고자 행사를 공동주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해외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초청해 그들의 희생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호국의 숨결대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에게 호국정신과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2017년부터 우란분절 백중 입재와 창건주 하도명화 보살의 추모재를 함께 봉행하고 있다.

한편, 홍법사는 7월 7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초재를 시작으로 2재 대만불광산 태국도량 태화사 주지 심정 스님(7월 14일),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7월 21일),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7월 28일),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8월 4일), 해인사 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8월 11일)에 이어 8월 18일 심산 스님의 회향 법문으로 우란분절 49일 백중기도를 진행한다.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연수회

6월 9일, 마곡사 템플스테이관서



조계종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단장 최종대)은 6월 9일 마곡사 템플스테이관에서 불기2568년 분야별 연수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연수에는 마곡사 총무국장 원묵 스님, 지도법사이자 마곡사 포교국장 서안 스님과 지역단 포교사 150여 명이 동참했다.

최종대 대전세종충남지역단장은 “다양한 현장에서 전문적인 봉사 인력을 원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는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불교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데 적극 참여하자”고 전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서광사, 시민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6월 8일 경내 특설무대서 개최



서산 서광사(주지 도선 스님)는 6월 8일 경내 대웅전 앞마당에서 ‘제15회 서산시민과 함께 하는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산사음악회에는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광사 주지 도선 스님은 “탁 트인 자연의 공간 속에서 석양과 산바람을 맞으며, 다양한 음악의 선율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울산불교계 소외계층 위한 자비나눔

울산불교신도회 · 덕원사 · 법륜사



(사)울산불교신도회(회장 이영수)가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 법륜사(주지 남수 스님)와 함께 자비나눔을 실천했다.〈사진〉

이영수 울산불교신도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6월 12일 덕원사 경내에서 울산지역 소년소녀가정에 백미 55포, 라면 50박스, 기프트 카드 25매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법륜사와는 어르신 대상 무료급식소 (사)복주리 울산지부를 방문해 백미 50포를 전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내소사 우암당 혜산 스님 19주기 추모재

6월 11일 대웅보전서 봉행



전북지역 대표 선지식이자 내소사 중창주 우암당 혜산 스님의 19주기 추모재가 6월 11일 내소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날 추모재에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진학 스님 등 상좌스님들과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원명 스님 등 문중 원로스님, 선운사 한주 범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강천사 주지 심학 스님 등 선운사 본말사 대중스님들이 참석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문도를 대표해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스님의 19주기를 맞아 동참해 주신 원로스님들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암당 혜산 스님은 1963년 내소사에서 해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선원장, 조계사 주지, 내소사 회주, 한일불교교류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6월 13일 내소사에서 세수 73세, 법랍 43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지리산 화엄사, 하림 스님 초청 법회

6월 1일, 경내 화엄원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 스님)가 6월 1일 경내 화엄원에서 부산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초청 화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화엄법회에는 교구 말사 주지스님과 신도를 비롯해 국제포교사 회원들이 동참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지역민이 인정하지 않는 사찰은 존재의 가치가 없고, 지역민과 함께하지 않는 사찰과 종교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화엄사가 ‘화엄’이라는 이름답게 여러분에게 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초청 법사로서 법상에 오른 하림 스님은 “우리가 힘든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믿음과 신심, 그리고 수행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부처님의 일생을 저의 소의경전이라 생각하고 어디 가나 갖고 다닌다. 만일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싶으면 이 책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동국대에서 최근 발행한 책 〈붓다〉를 권했다.

이날 화엄법회에서는 국제포교사의 사찰수련회 입재식도 겸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양산 내원사, 천성산 산신재 봉행

국태민안 · 생태환경 보전 발원



양산 내원사(주지 지도 스님)는 6월 10일 천성산 정상인 원효봉에서 산신재를 열고 천성산과 화엄벌 일대 자연 보호와 지역민들의 안녕을 기원했다.〈사진〉

지도 스님은 “많은 시민이 깨끗한 천성산을 찾아 힐링할 수 있길 발원하면서 산신재를 지내왔다”며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 없기에 지금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대장경 연구에 대한 독보적인 책!

새로 쓰는 대장경의 성립과 변천

인도에서의 불교경전 성립에서부터 티베트, 중국, 한반도, 일본으로의 전래와 그들 지역에서의 경전 수용과 번역, 변용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교토불교각종학교연합회 편/박용진 · 최종남 역/신국판/388쪽/값 25,000원

마음에 관한 가장 깊고 치밀한 탐구!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

현대 심리학의 개념인 인간의 ‘정서’와 ‘인지’를 유식학의 관점에서 논하고, 나아가 양자를 비교 분석하여 몸과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다.

안환기 지음/신국판/340쪽/값 23,000원

‘클래식’과 ‘불교’를 융합하는 독창적 시도!

클래식, 경계를 넘어

‘보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클래식과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는 붓다의 가르침이 만나 엮어내는 심포니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김준희 지음/국판변형/240쪽/값 20,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